

4. 外資 調達 與 件의 惡化

- 現況
 - (國內 企業 및 銀行 信用度 下落) 미국의 무디스 및 S&P 신용평가기관은 한보 관련 은행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하였고, 국내기업의 해외발행 증권의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함
 - (外貨借入金利 上昇)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은행들은 한국의 은행·기업 모두에 종전보다 0.1~0.2% 포인트 높게 대출 금리를 적용함
 - (海外證券의 發行條件 惡化) 한국물에 대한 신용도 하락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증권 발행 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
- 展望 및 波及 效果
 - 외자 조달 여건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 - 이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효과로 작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, 특히 신용도가 낮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은 더욱어려워질 것임
- 對應 方案
 - 국내 기업과 은행은 대외신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외화 자금 조달 및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

한국의 은행과 기업의 신용도 하락, 차입금리 상승, 해외증권 한국물의 가격 하락 및 발행조건 악화를 초래

- 現況
 - (국내 기업 및 은행 신용도 하락)
 - 미국의 무디스나 S&P 신용평가사는 제일은행을 「요주의 대상(Credit Watch)」으로 분류하고 단기채무 신용 등급을 낮추었음
 -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은행의 여신상황, 자산운용, 건전성 등에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
 - 우성건설, 건영, 삼익악기에 이어 한보 부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켰음
 - (외화 차입 금리 상승) 한보철강 대출과 관련된 주요 은행(제일은행, 산업은행, 외환은행, 조흥은행)의 해외차입 금리가 1월 말에 20bp(basis points=0.01%)이상 급등하기도 하였음
 - 제일은행(LIBOR+50bp에서 70bp이상으로 상승), 산업은행(LIBOR+13bp~14bp에서 17bp로 상승),

조흥 및 외환은행(LIBOR+27~28bp에서 32~33bp로 상승)

- 국내 시중은행들이 국내 외국 금융기관으로 부터 3개월 단기 차입하는 금리도 0.05 ~ 0.1% pt 상승하였음

- (해외 증권가격의 약세 및 발행 조건 악화)

- 한보철강 해외CB는 부도 전 LIBOR + 1.5% 이었으나 부도 후 정크 본드로 전락하였음
- 한국제지는 해외 CB발행을 취소하고, 상업은행은 DR발행을 연기하였음
- 보람은행과 한일은행의 2월과 3월의 DR발행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

외자조달여건의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신용도가 낮은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

○ 展望 및 波及效果

- 국내 은행 및 기업의 외자 조달 여건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보그룹의 부도는 상당히 구조적인 부실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 기업 및 은행의 해외차입 금리는 높아질 것임
- 특히, 신용등급별 차입금리의 격차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,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
- 물론,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및 국내 은행 및 기업의 신용도 제고 여하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것임

국내 기업 및 은행들은 대외 신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 조달에 힘써야 할 것임

○ 對應 方案

- (대외 신용도 제고)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합리적인 경영 뿐만 아니라 그 투명성을 제고하여 해외 신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임
- 특히, 기업은 높은 국제 신용 등급을 얻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OECD 회원국의 이점을 살려나가야 할 것임
- (효율적인 자금 조달) 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, 국제 금융 시장 및 관련 상품 정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(김희성)